

설날가정예배 설교문

❖ 추모예배용: 신명기 8장 11-20절

*설교를 맡아 주신 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가서 잘될 때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도우심을 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내 힘으로 잘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높이 올라가게 합니다. 만족이 없이 끝없이 올라가려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1. 풍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풍부해질 때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12-14절). 간혹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2.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다닐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든지, 또 반대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그것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날가정에배 기도문

❖ 추모예배용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철따라 대지 위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새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 오늘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올 한해도 온 가족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기독교 신앙을 가업으로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묘예배용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산소에 찾아와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앞서가신 조상의 묘소 앞에 모여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